

지역 소식통

정읍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1억3100만원 고지

정읍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6만9000여 건에 71억 31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보다 4600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건축물은 전년 대비 4300만원 감소, 주택은 8900만원 증가했다. 1주택자는 특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43~45%로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주택의 경우 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각 1/2씩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정읍=김태환 기자

부안군, 농작업 안전 실천 결의대회 개최

한국생활개선부안군연합회(회장 박인숙)는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에 걸쳐 부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작업 안전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결의대회에서 박인숙 연합회장 등 450여 명의 회원은 확인하자 위험 요소, 지키자 안전 수칙!, 농업인 안전 365! 사고 없는 안전한 농촌! 등 6개 조항의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고, 농작업 안전 문화 확산과 실천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박인숙 회장은 "생활개선회원이 역량을 모아 농업인의 안전 의식 함양에 노력하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농작업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백정에 교수의 농촌지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중 '숲을 이용한 건강한 맨발 걷기'를 주제로 한 특강과 바른 자세 걷기법도 소개해 회원들의 많은 호응이 이어졌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세계유산 중심 콘텐츠 개발

'위케이션 활성화' 공모 선정, 명사십리 해양관광지 관광개발 본격 시동 등도

고창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7가지 보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하고 색다른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1300만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지난 4~5월 진행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7가지 보물 스탬프 투어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관광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를 향한 MZ세대의 여행트렌드에 맞춘 매력적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홍보전략을 펼치고 있고, 하반기의 포토스팟이 될 장소를 찾는 관광객들을 겨냥해 세계유산 도시 고창 7가지 보물 포토존을 개발하여 MZ세대의 감성을 공략하고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전국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 전국 초·중·고 1만2000여개의 학교에 심덕섭 고창군수의 초청 서한문을 발송했다. 유네스코 관련 유료 관광지를 1개소 이상 방문하는 수학여행단에 버스 임차료를 적극 지원해 더 많은 아이들이 고창에서 소중한 수학여행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팔을 걷어붙였다. 전북 유일 '위케이션 활성화' 공모에도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4년 위케이션 활성화 공모사업'에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유일하게 고창군이 선정되어 국비 1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상하원의 '파머셜리자'를 리모델링하여 사용자 목적과 편의에 맞춰 시무, 독립형 휴게공간 등 다양한 공유오피스 거점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명사십리 해양관광지 관광개발에도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지난 7월10일 심덕섭 고창군수는 기획재정부가 주재한 제3차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에 참석하여 기재부 소유 명사십리 해양관광지 개발부지 10만6344㎡에 대해 매각 약속을 받았으며 국방부 한국전력공사 부지에 대해서도 연내 협의를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 품소만에 입항 될 대형 크루즈선 관광객(연간 60만명 규모)의 발을 묶어놓을 고창과 부안 두 지자체간 관광전략과 해상관광지 공동조성에 관한 협의회도 진행중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전국단위 등 13개 스포츠대회 성공개최

올 상반기 40억원 상당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창군이 올 상반기 다양한 스포츠 행사를 성공적으로 열어 약 4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냈다고 18일 밝혔다. 상반기 중 전국단위 체육대회 5개, 도단위 체육대회 1개, 군단위 체육대회 13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와 함께 16개 팀의 전지훈련을 유치해 지역 내 숙박업소와 음식점에 선수·임원은 물론, 학부모, 응원단이 몰렸다. 군은 2만1500여명의 방문객이 고창군을 찾았으며, 약 40억원 이상의 직·간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월에는 '제8회 고창고인돌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가 개최되어 38개 팀 7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보였다. 5월에는 '제22회 한국어성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 대회'가 개최되어 약 3500여명의 선수들이 겨루기·격파·품세 종목에 참여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고창군은 하반기에도 우수한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해 '고창북부자배 전국배드민턴 대회', '대학 전국태권도대회', '고창선문산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고창고인돌 마라톤 대회' 등 전국단위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선운산 트릴라미팅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고,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클리핑 교실을 운영하는 등 스포츠와 지역관광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경제 효과가 큰 대회의 경우 다년 계약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스포츠 마케팅을 이어가 고창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고창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

부안군은 지난 17일 25개 부서 국·과·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부안군 미래 100년 발전을 향한 대도약'이라는 기치 아래 '지속가능한 부안발전과 군민행복 100% 실현'을 목표로 추진해 온 군정 운영 성과와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군 주요 현안사업 및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미래로 세계로 행동하는 부안 실현을 위해 심도 있게 진행됐다.

또 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 반환점 시기에 하반기 인사이동 이후 권익현 부안군수 주재로 진행된 첫 번째 보고회로 부서별 비전과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동시에 민선 8기 전반기 점검 및 하반기 나아가야 할 군정 방향을 재정립하는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민선8기 공약 실천·이행평가 최우수(SA) 달성, 행안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 승인,



어르신 일자리 확대 지원, 위도 자연휴양림 지정, 부안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 증가, 지역활력타운(해탈헬니스타운) 공모 선정, 노인 무료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기준 완화 등이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난 17일 민원 담당 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실천"

권익현 부안군수, 민원 담당 공무원 소통 간담회 개최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난 17일 민원 담당 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원과 민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간담회는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날로 증가하는 다양한 갈등상황 및 민원창구 근무자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을 통해 민원서비스 품질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MZ세대인 신규직원들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됐다. 권익현 군수는 "복잡·다양한 분야에서 특히 민원 등을 겪게 되는 민원 담당 직원들의 고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앞으로도 소통의 시간을 자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원창구는 군의 얼굴로 군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첨단에 있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늘 군민 가까이에서 일하고 있는 민원과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원인들이 민원처리에 있어 불편함 없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특히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직원 보호를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 녹음 기능이 장착된 전화기와 본청을 포함한 모든 읍·면 민원창구에 고정식 강화유리 가림막을 설치했으며 직원 심리상담실 운영, 힐링 프로그램 운영, 민원 처리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 등의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청년취업준비반 하반기 수강생 추가 모집

정읍시가 청년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청년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청년취업시험 준비반에서 하반기 수강생 50명을 7월 2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연속해 거주하는 시민과 시민의 배우자 및 자녀로, 18세부터 45세까지다. 대상자는 청년취업시험 준비반 사무실(정읍시 중앙길 22 평생학습관 3층)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청년취업시험 준비반은 공무원 직강반, 공무원 동영상반, 공기업(NCS) 동영상반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 직강반은 공통과목(국어·영

어·한국사)과 행정법에 대해 전문강사의 직강이 이뤄지며, NCS 동영상반은 수리영역·문제해결·의사소통 등 3과목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공무원 동영상반은 전과목 강의를 지원한다. 청년취업시험 준비반은 지난해 2월에 개강해 현재까지 공무원 및 금융권에서 7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올해 6월 지방직공무원 필기시험에서도 합격자를 배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직렬·직급의 공무원 및 공기업 시험 준비생을 겨냥한 맞춤형 교육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청년취업시험 준비반을 통해 청년들이 정읍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인 취업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태환 기자

Advertisement for '착한신고' (Good Reporting) campaign. It features a woman covering her face in distress, with hands pointing towards her. The text promotes reporting child abuse to the 112 hotline. Key points include: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You who reports are a hero),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You must report if you know or suspect child abuse, and a fine of up to 500,000 won will be imposed if you do not report), and a list of signs of child abuse: '아동학대 행태적징후' (Behavioral signs of child abuse) such as withdrawal, fear, and aggression;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Behavioral signs of child abuse) such as aggression, defiance, and withdrawal; and '아동학대 정서적징후' (Emotional signs of child abuse) such as depression, anxiety, and self-harm. Contact information: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